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슈퍼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50명 사망·실종



베트남에서 태풍 ‘야기’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가 59명으로 늘었다고 9일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야기는 중국 하이난성 및 광둥성에 이어 베트남 북부에 7일 오후 상륙했으며 이때 9명이 사망했다. 야기는 내륙 서진하면서 열대 폭풍으로 악화되었으나 이어진 산사태와 홍수로 베트남에서 50명이 더 사망했다.

9일 아침에 산악 지대인 카오방주에서 20명을 태운 버스가 산사태로 홍수 물결에 휩쓸렸다. 구조대가 급파되었으나 산사태로 현장 접근이 막혔다. 푸토주에서 강철 교량이 물이 불어난 강으로 무너져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강에 빠졌다. 3명은 구조

되었으나 13명은 실종 상태다.

야기는 이틀 전 베트남에 최대 시속 149km의 바람과 함께 상륙해 수십 년 래 최대 규모의 태풍 상륙이었다. 열대 폭풍으로 약해진 8일에 트레킹 기지로 유명한 사바시에서 산사태로 6명이 사망했다. 관영 언론에 따르면 주말에 21명이 죽고 299명이 다쳤다.

수도 하노이 등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다.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주택 다수가 파손되는 등 도시가 아수라장이 됐다. 팡닌성, 타이빈성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위험 지역 주민 약 5만 명을 대피시키고 하노이, 하이퐁 등 4개 공항을 폐쇄했다. 50만 명 가까운 군인이 방재 작업에 투입됐다. 팡닌성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가 있는 지역이다. 크루즈 등 선박 운항도 취소됐다.

재난 당국은 주택이 3천200채 이상 파손되고 논 12만ha가 침수됐으며, 1천 개 이상 양식장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베트남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도 야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야기가 지난 6일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월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중국에서는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2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다(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종합).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하나님,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을 지나 베트남까지 강타하여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사태와 홍수까지 이어져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생명이 위급한 자들을 속히 구조하여 주시고 복구에 힘쓰는 정부와 국민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사람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베트남 교회를 이때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유엔난민기구, 난민 어린이 절반 학교 못 다녀

전 세계 학령기 난민 어린이의 절반 정도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유엔난민기구(UNHCR)를 인용해 전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2022-2023년 학교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난민 어린이가 720만 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난민 어린이가 1,480만 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난민 어린이의 교육 단계별 등록률은 유아교육 37%, 초등교육 65%, 중등교육 42% 등으로 집계됐다. 대학교 등 고등교육 시설에 등록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어린이가 처한 환경이 불안정한 데다 체류 지역의 교육정책이 포용적이지 못한 점, 교육 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유엔난민기구는 “올해 고등교육을 받는 난민 학생 수가 5만 명 정도 늘었는데도 전체적으로 난민 규모가 증가하면서 학교 등록률에는 변함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잠언 3:18,21-22)

하나님, 전 세계 난민들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절박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운 이들의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에 가장 시급한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사랑하는 다음세대에게도 이것을 떠나지 않게 가르쳐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복음이 운명이 된 자들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다음세대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신성모독법으로 갇혔다 풀려난 파키스탄 여성, “복음 전파” 다짐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따라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기독교 여성이 그녀의 여동생과 동료 기독교인 3명과 함께 무슬림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전했다. 이슬라마바드에 거주하는 사바 부타(27)는 지난 5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후,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루 전인 4일 라왈핀디 기차역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슬람 강경단체 TLP 회원들이 그녀의 전도를 반대했으며, 그때 다가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자리에는 그녀의 동생 아니타 부타(24), 아딜 사마운(22), 주바엔 샘슨(17), 영국 국적의 조나단 하워드(34) 등과 함께 있었다. 교육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그녀는 동생과 함께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복음전도 그룹을 결성, 활동해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아가 6:4,10)

하나님, 파키스탄에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당당한 주님의 신부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이 나라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는지 알면서도 기꺼이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성도들이 끝까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파키스탄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로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4년간 1만 7,000여 명 사망**



2019년-2023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약 1만 7,000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아프리카 종교 자유 관측소(Observatory for Religious Freedom in Africa, ORFA)는 사망자 중 절반 이상(55%)은 급진 무슬림 플라니족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 관측소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나이지리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학 행위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약 1만 건에 가까운 공격과 5만 6,0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이중 3만 명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기독교인 희생자 수(1만 6,769명)는 무슬림 사망자 수(6,235명)의 두 배가 넘었다.

종교 자유 관측소는 “공격이 발생하는 주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피해 비율이 매우 높다. 주 인구 비율로 보면, 기독교인이 무슬림보다 6.5배 더 많이 살해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폭력은 나이지리아의 북중부 지역과 남부 카두나주에 집중돼 있으며, 공격 현장에 대한 보안군의 개입은 현저히 적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 관측소의 선임 분석가 프란스 비어하우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서 “수년 동안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취약한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무시되는 상황을 들어왔다. 이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4년의 연구 기간 동안 살해 외에도 2만 1,000건의 납치 사건이 기록됐다. 기독교인이 무슬림보다 납치될 가능성이 1.4배 더 높았다. 종교 자유 관측소의 파트너이자 분석가인 기드온 파라-말람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플라니 종족 민병대(Fulani Ethnic Militia, FEM)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도, 무슬림도 “그들의 손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재 폭력 사태로 330만 명이 집을 잃고 임시 캠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종교 자유 관측소는 국제사회가 이번 연구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이지리아에 대한 도전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9-10)

하나님,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나이지리아를 돌보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환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시며, 징계받는 자 같으나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사탄의 간계가 무너지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때 열방의 교회가 나이지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옵소서.

▲ 키르기스스탄, 아프간 탈레반 테러 단체 명단서 제외...정권 인정 움직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아프간톨로뉴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외무부는 탈레반을 금지 단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프간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확립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아프간 북부 바다크산주에는 많은 키르기스인들이 거주한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자 약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장악했지만, 국제 사회는 탈레반을 아프간 정권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국은 주중국 아프간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고, 지난달 아랍에미리트도 탈레반 외교관을 자국 대사로 승인했다. 카자흐스탄은 작년 말 탈레반을 자국 금지 조직 목록에서 제거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정권으로 인정하는 나라들로 인해 그의 세력이 힘을 얻지 않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탈레반 장악 이후 계속되는 아프간 국민의 신음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사 관련 국가들이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의 찢림과 선한 양심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구하고 찾아 영혼이 새롭게 변화 받게 하옵소서.

▲ 성중립 대명사 사용 거부 영국 기독 교사 3번째 징역형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 거부로 학교와 장기간 분쟁을 벌여온 기독 교사가 3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4일 전했다. 아일랜드 웨스트미스 카운티에 있는 윌슨병원학교(Wilson's Hospital School)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에noch 버크(Enoch Burke)는 2022년 8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그들'이라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일, 학교에 가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모옥죄로 마운트조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앞서 학교 접근 금지 명령에도 학교에 나타나 두 번 수감됐다. 학교 측은 에noch 버크가 가르칠 준비가 됐다고 계속 말하자, 그를 캠퍼스에서 쫓아내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했다. 버크는 "지금까지 400일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며 "더 이상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없다는 명령과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진리 대신 트랜스젠더에 대한 신념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10월 11일에 검토될 예정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디모데후서 1:13-14)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한 영국 교사의 신념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닷가지불과 고난의 소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영국을 꾸짖어 주시고 성도들이 에noch 버크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영국 교회를 깨워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종교적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이 부탁하신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 행하여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집회 열려**



8월 31일,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 연방 의회 광장에서 열린 ‘박해.지금 (Persecution.now)’ 집회에 약 1,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전 세계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지난 2일 전했다.

이날 두 명의 박해 피해자 연설은 사람들에게 인권 침해에 맞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아민 아프샤르나데리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란에서 두 번이나 수감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반복적인 심문, 모욕, 굴욕,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배신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압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과 아시아 출신 국가를 밝히지 않은 두 번째 연사도 여러 차례 감옥과 고문을 직접 경험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법은 기독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자신의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근절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신앙은 내가 가장 어두운 감옥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낸 믿음”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유로운 나라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기도, 박해받는 이들을 지역 교회로 초대,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 종교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미디어 전문가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행사 참가자 중에는 국민의회 의원인 로랑 베흘리도 있었다. 그는 여러 의회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얻고 관련 대사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캠페인을 벌인 54명의 수감자 중 24명이 조기 석방됐다”고 말했다. 로랑 베흘리는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3억 6,5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숫자가 미미하게 들릴지라도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하나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스위스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믿음의 역사에 전 세계 교회가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예수 교회된 증인들을 통해 복음이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세워주신 교회가 신령한 복을 더욱 사모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니카라과, 수감된 마운틴 게이트웨이 사역자 13명 석방

올해 초 니카라과에 수감된 텍사스 소재 마운틴 게이트웨이 선교회의 사역자 13명이 석방됐다고 6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오늘 석방된 135명의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 중 포함됐다. 대규모 전도 캠페인 후 지난해 12월에 체포된 니카라과 목사들과 마운틴 게이트웨이의 다른 회원들은 지난 3월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10억 달러(약 1조 3,276억 원)의 벌금을 물었고, 이들을 변호한 변호사 2명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틴 게이트웨이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존 브리튼 핸콕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온 날이 오늘"이라며, "미국 의회,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그들의 부당한 감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시편 65:2,5)

하나님,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탄압이 점점 더해가는 니카라과의 모든 육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구금된 자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싸운 미국 정부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겸손히 주를 높이게 하소서. 니카라과의 교회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를 힘있게 붙들어, 복음과 기도로 땅끝까지 주의 의를 선포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모로코·알제리, 수해로 20여 명 사망·나이지리아는 홍수로 댐 붕괴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산과 사막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20명 이상이 숨졌다고 10일 연합뉴스가 A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모로코 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남부와 중부 일부 농촌 지역에서 폭우로 주택 56채가 무너지고 18명이 숨졌으며 9명이 실종됐다. 이번 폭우로 피해 지역의 주요 도로와 식수, 전기 인프라가 손상됐다. 알제리의 사막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폭우 피해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다. 기상학자들은 최근 강우량이 적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이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도 홍수로 댐이 붕괴하면서 30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대피했다. 나이지리아 국가재난관리청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응다강에 위치한 알라우 댐이 홍수로 붕괴하면서 도시 마이두구리 약 40%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보르노 주지사의 한 보좌관은 "100만 명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민 규모가 집계되면 최대 2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시편 139:9-10,12)

하나님, 모로코와 알제리, 나이지리아에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돌보시고 실종된 자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들이 끝까지 추적하여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재민들의 필요를 도우시고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모두에게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민족 중에 선포되게 하옵소서.